

〈제16회 독서주간기념 제1회 한국잡지전시회〉

# 展示雜誌 解題目錄(完)

解題 · 金 根 洙

## 鹿苑 鹿苑社, 1957~

本誌는 隔月刊 佛敎 敎養誌로서 1957年 2月 5日에 創刊되었다. 創刊 卷頭言에 <本誌는 民族 固有의 文化的 遺産을 찾고 東洋의 文化寶를 發掘하는 役割을 할 敎養誌로 誕生된 것이니 云云>한 것은 本誌의 性格을 말한 것이라 하겠다.

編輯 兼 發行人: 鄭泰燧

## 基藝敎界 基督教界社, 1957~

本誌는 超敎派의 立場에서 全 基督教人 및 一般大衆에게 基督教精神을 鼓舞 培養시킴을 그 趣旨로 한 月刊誌로서 1957年 8月 1日 創刊되었다.

編輯 · 發行 兼 印印人: 康南植

## 讀書界 讀書界社, 1957~

本誌는 모든 讀書人에게 案內가 되고 參考가 되고 指針이 되기 爲하여 創刊한 月刊誌로서 1957年 7月 1日에 創刊되었다.

發行人: 李敎範      主 幹: 金昌洙

## 鄉 密陽郡大學生會, 1957~

本誌는 綜合文化誌로서 1957年 11月 21日 密陽에서 創刊되었다.

主 幹: 趙光龍      編輯人: 芮鍾淑

## 現代 女苑社, 1957~1958.

本誌는 現代人의 生活雜誌로서 月刊이다. 1957年 11月 1日 창간, 1958年 4月 1日 通卷 6號로 종간.

편집장 발행인: 金命燦 주 간: 金榮滿, 편집장: 林芳鉉

## 現代詩 正音社, 1958.

本誌는 韓國詩人協會의 機關誌로서 詩專門誌이다. 1958年 8月 27日 通卷2輯으로 終刊되었다.

發行人: 崔暎海      主 幹: 柳致環  
特色: 本誌는 名實相符 韓國詩人을 거의 總網羅한 雜誌였다.

## 國語國文學報 國語國文學會,

本 學報는 東國大學校 文理科大學 國語國文學會의 機關誌로서 敎授 · 學生의 論文과 文學作品(詩, 評論, 小說 등)이 收錄되어 있다.

編輯人: 趙東烈

## 文學界 大邱英雄出版社, 1958~

文學마저 中央執權制로 솔리는 通幣를 止揚하기 爲하여 隔月刊으로 大邱에서 1958年 3月 5日에 創刊된 것으로 菊版 203面に 執筆陣과 內容도 經視할 수 없을 만하다.

編輯人: 閔基萬      發行 · 印刷人: 韓秉庸

## 世界 國際文化研究所, 1958~1960.

本誌는 國際文化研究所의 機關誌로서 「世界에 열려진 韓國의 窓」이라는 motto 아래 통권 14號까지에는 主로 英, 美, 佛, 獨의 著名한 學報 雜誌의 最新號에 나타난 가장 새로운 知識을 옮겨 紹介함을 主眼으로 하되, 必要한 경우에는 新刊 單行本도 譯載했다. 통권 15號부터는 革新하여, 翻譯誌의 傳統을 그대로 살리며, 綜合誌로서 새 모습으로 바뀌 번역 이외의 글도 실리게 되었다. 1958. 12. 20~1960. 7. 25. 通卷20號

編輯 兼 發行人: 李東俊, 主幹: 申一澈

## 小說公園 新太陽社, 1958~

本誌는 月刊 小說 雜誌로서 1958年 12月 1日에 創刊되었다.

發行 · 編輯 兼 印刷人: 黃俊性

## 詩와 詩論 人間社, 1958~1961

本誌는 詩 專門의 同人誌로서 現 文壇의 宗派主義를 超越한 <現役詩人이면 누구나 새로운 新人을 인출할 수 있는 制度를 마련 하며> 이것을 旗幟로 들고 일어난 잡지가 이 『詩와 詩論』이다.

本誌는 1958年 4月 20日에 창간되어 通卷4輯을 내고 1961년에 終刊되었다.

창간호의 發行人: 朴巨影, 主幹: 成蒼兆

( 1 6 )

**新文督** 正陽社, 1958~1959.

本誌는 純文藝誌로서 1958年 6月 10日에 創刊되어 通卷 16號로써 1959年 11月 20日 終刊되었다.

每號 菊版 百萬內외의 小雜誌였으나, 編輯上 內容上 質 雜誌였다.

編輯 兼 發行人: 尹英, 主幹: 張萬榮

**新文化** 新文化社, 1958~

本誌는 교양과 문예 잡지로서 1958年 9月 1日에 創刊된 菊版 12面(창간호)의 月刊誌다.

편집장 발행인: 具仲書

**新潮文學** 新潮文學社, 1958.

<高度의 批評精神과 多彩로운 技法의 새로운 武裝으로 젊은 世代를 위한, 젊은 世代에 依한, 젊음의 文學誌가 되고자>創刊한 잡지가 이 『新潮文學』으로서, 1958年 5月 1日 釜山에서 創刊되어 通卷2號로써 同年 9月 1日 終刊되었다.

編輯 兼 發行人: 鄭相九

**知性** 乙酉文化社, 1958.

本誌는 現代思潮 全般에 걸친 知性的인 季刊 教養誌로서 1958年 6月 1日에 創刊되어 同年 2月 1日 通卷 3號로 終刊되었다.

發行 兼 編輯人: 鄭銀肅

**學報** 釜山大學校文科大学併合會,

本學報는 釜山大學校 文理科大學 併合學會의 機關誌로서 人文科學·社會科學·自然科學에 關한 教授들의 學術誌다.

발행인: 韓孝東 편집인: 金廷漢

**學術界** 學術界社, 1958.

本誌는 人文 및 自然科學者들의 學術 研究 論文을 爲主로 하는 韓國 學術界의 綜合研究誌로서 1958年 7月 20日에 創刊 終刊되었다.

編輯 兼 發行人: 張慶煥

**韓國評論** 韓國評論社, 1958~1959.

本誌는 月刊 綜合誌로서 1958年 4月 15日에 創刊되어 1959年 1月 通卷7號로써 終刊되었다.

編輯, 執筆陣, 內容도 優秀하고 面數도 每號 菊版 200餘面 乃至 300餘面の 손꼽을 만한 좋은 잡지였다.

發行 兼 印刷人: 洪必基 主幹: 李敬善

**獨逸文學** 新丘文化社, 1959~

本誌는 韓國獨逸文學會의 機關誌로서 1959年 5月 20日에 創刊되어 다음 해 10月 5日에 第2輯을 發行했다. 이 『獨逸文學』은 文學誌라기보다는 獨逸語·獨逸

文學에 關한 學術誌다.

發行人: 同學會 發行所: 新丘文化社 뒤엔 東明社

**文藝** 文藝社, 1959~1960.

本誌는 月刊 文藝誌로서, 그 창간사를 빌어 말하면 <現文壇의 姑息的 派爭을 止揚하고 아울러 本來의 古典이 될 수 있는 偉大한 文學作品의 創造育成에 裨益되기 위하여>, <內的으로는 超黨派的인 位置에서 汎文壇의 公器가 되고, 外的으로는 外國文學의 嶄新한 潮流에 冷徹한 透視力으로 귀를 기울여, 韓國文學의 健實하고 豐饒한 發展을 위한다>는 포부와 의도로 창간된 잡지인 것이다.

1959. 10. 15~1960. 8. 1 通卷 10號

發行人: 李圭元, 編輯人: 林秀逸

**文學評論** 文學評論社, 1959.

本誌는 現代評論家協會의 機關誌로서 評論 專門의 月刊誌이다. 1959年 1月 1日 創刊되어 同年 3月 1日 通卷3號로 終刊되었다.

發行人: 李永純 編輯人: 金容權 主幹: 李哲範

**抒情詩** 公民社, 1959~

本誌는 詩同人誌로서 1959年 11月 1日에 創刊되었다. 本誌의 同人은 鄭在浣, 曹純, 姜尙求, 金光會, 朴泰芝, 韓瓚植, 金海錫, 鄭弘道, 宋永譯 등이다.

그리고 編輯人은 韓瓚植이다.

**詩作業** 濟州友生出版社, 1959~

本誌는 <오로지 現下 文壇의 中央集權制와 그 派閥을 止揚하기 爲한 20代의 抗議의 姿勢 그것에 있고 現代文學이 갖는 人間救濟의 使命을 完遂하려는 目的을 두고> 創刊한 詩誌로서 1959年 10月 25日에 創刊되었다.

發行人: 高淳河, 主幹: 梁淳玟

**씨나리오文藝** 씨나리오文藝社, 1959~1960.

本誌는 우리나라 唯一의 씨나리오 研究誌로서 1959年 1月 1日에 創刊되어 1960年 8月 1日 通卷 7輯으로 終刊되었다. 短命이었으나 씨나리오文學界에 貢獻한 바가 적지 않음을 본다.

發行·編輯: 河東烈, 主幹: 林藝

**France** 韓佛文化協會, 1959.

本誌는 季刊誌로서, 韓佛 兩國의 文化交流와 友好 增進을 爲하여 設立된 韓佛文化協會의 機關誌로서 興味와 學術의 中間을 結은 雜誌라는 點이 그 特性이라 하겠다. 面數: 菊版 116面.

發行人: 金法麟, 編輯人: 李彙榮, 發行所: 韓佛文化協會